

2023. 10. 10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

홍보담당관	김 규 리	2133-6405
홍보지원팀장	정 호 진	2133-6438
홍보전략팀장	유 병 천	2133-6450
주 무 관	채 호 석	2133-6431
주 무 관	박 지 연	2133-6453
관련홈페이지	<a href="https://news.seoul.go.kr/gov/seoul-dream-board">https://news.seoul.go.kr/gov/seoul-dream-board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4쪽

### “설레었나 봐, 네가 오니 붉게 물들어”

## 서울시, 2023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개

- 10일(화) 서울도서관 외벽에 새로운 문안으로 단장한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게시
- 10일간 764편 문안 접수...당선작 김서현 씨 작품 외 가작 4편 수상
- “계절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문안”

“다가온 계절에 맞춰 예쁘게 단장한 꿈새김판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가을의 설렘을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”

- 2023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당선작 수상자 김서현

- 10일(화)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(이하 꿈새김판)을 새롭게 단장하였다.

- 서울시는 2023년 가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.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김서현 씨의 <설레었나 봐, 네가 오니 붉게 물들어>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. 시는 문안에 맞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10월 10일(화) 오전에 꿈새김판을 게시했다.
- ‘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전하는 글귀’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모전에는 764편의 문안이 접수되었으며, 그중 김서현 씨 외 4명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.

〈2023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수상 작품〉

연번	순위	응모자	작 품
1	당선	김서현	설레었나 봐, 네가 오니 붉게 물들어
2	가작	고○재	가을 바람 솔솔 바라는 대로 솔솔
3		임○옥	가을은 열매의 무게를 가리지 않아. 나답게 익어가면 돼.
4		김○선	가을바람 불어오면 그대 바람도 이루어지길
5		강○정	가장 따뜻한 주황빛, 온 세상을 종이삼아 수채화 번지듯

- 공모전 당선작 수상자 김서현 씨는 문안을 통해 “가을에 떠오르는 상상들을 한 문장에 담고자 했다”며, “열심히 농사지은 수확의 기쁨, 그것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기다리는 설렘 등 풍요로움을 느끼는 가을의 감정을 아우르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-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“계절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문안”이라며, “가을 단풍에 이입한 마음이 재밌게 표현되어 가을의 청량감과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선정했다”고 밝혔다.
  
-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“풍요로운 가을, 여유와 설렘을 서울꿈새김판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  - 서울꿈새김판은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들이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2013년 6월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. 시민창작문안 공모를 통해 봄·가을·가을·겨울에 선보이는 계절편과, 3.1절, 광복절 등에 맞춰 기획·게시되는 국경일·기념일편으로 운영된다.

붙임: 2023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이미지



< 2023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>



< 설치 시뮬레이션 >